

Sermon of the Week:

From Abraham's Call to Our New Creation



Passage: Genesis 15:1-7 (ESV)

Date: August 24, 2025

Pastor: Dongsuk Chung

When God created man, His purpose was that humanity would live in fellowship with Him and manifest Him. Yet, after being deceived by the devil and eating the frui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man fell under the curse of sin and death and became separated from God. As a result, in the days of Noah, all humanity perished under the judgment of the flood, except for Noah and his family. But God did not abandon His original purpose of creation. He called on Abraham and began again. Therefore, we are no longer descendants of the first Adam, but descendants of Abraham—the one who was called by God.

God called Abraham out of a world ruled by Satan. Why did He command him to leave his homeland,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hold? It was to give him a son, Isaac, and the land of Canaan. In the same way, the reason God has called us today is to give us His Son, Jesus Christ, and the eternal inheritance—the kingdom of God and heaven—symbolized by the land of Canaan.

This eternal inheritance, this kingdom and heaven, begins with Jesus Chris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John 3:16]. God has given us His Son as a gift. The very God who created us became a man 2,000 years ago and shed His blood unto death, forgiving all our sins. Though He was the only Son, through His death He bore much fruit. This is the

expansion of Jesus Christ—namely, the Church. The Jesus whom I have received is the One who created me, redeemed me, and cleansed me. When He comes into me, He becomes my life; when He flows out through my heart and lips, it becomes the church and the inheritance. The wisdom, understanding, redemption, and holiness of God that is revealed through me—that is the church.

But a problem arises when our faith remains only at the level of believing Jesus died "for me," without believing that He also died "with me." If the old self that ate of the tree of knowledge is still alive—acting according to my own will—then even though I am saved, I will still live in fear, anxiety, and worry. This is an incomplete death of the cross. We must realize that our greatest enemy is our own self. Just as David became an enemy of King Saul after slaying Goliath, when new life comes through Jesus Christ, the old self becomes an enemy. The "old man" or "I" is the embodiment of Satan and must be put to death. This is why God sent His only Son: to put the old self to death. The death where I died with Jesus—that death is true death. Only when the "I" within me dies, does Christ become Lord and His wisdom, holiness, and redemption are manifested in my life—this expansion of Himself becomes the church.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we also died and resurrected with Him. Now, because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it is no longer "I" who lives, but Christ who lives in me. This is our true identity as new creations in Christ. What remains for us is to live a victorious life by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through the life of

Jesus within us. This battle is not fought to gain victory, but to manifest the victory He has already won. Trials and tribulations are not given to us as challenges to overcome through our efforts, but as opportunities to reveal the victory of the Lord who has already overcome all. If, when problems arise, I strive to resolve them myself, it proves that my "old self" is struggling to gain control again. The reason we live weighed down with worry is not because we lack resources, but because the "I"—who embodies Satan—resists giving up control to the Jesus who lives in me. All power belongs to Jesus and He already lives within me. Once "I" die, His power will flow out.

As the Lord said,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John 15:5]. A branch has nothing else to look at—whether in life or death—except the vine, which is Jesus. Do not focus on your circumstances; if you remain attached to the Lord, His life-giving sap will flow abundantly and the Lord Himself will resolve everything. There is nothing that is impossible for Him. Our task is to open the way for the Lord to work so He will deal with the issues of our families and our circumstances.

The Son of God became man,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and now He dwells in us as one with us. This is the very place to which God has called us. From here we partake of complete redemption and the eternal kingdom. May we never forget this position and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the marvelous faith to rely only on the Lord, who has already resolved every problem.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9월 7일, 2025년

NASUNGCHURCH.NET

71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15장 1-7절

날짜: 8월 24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 시대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임금 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정죄된 세상에서 불러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업, 나라와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기업,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2천 년 전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는 외아들이셨지만, 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

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곧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속하고 정결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속에 오실 때 생명이 되시고,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 나가실 때 교회와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구속과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믿음보다 '날 위해' 죽으셨다고만 여기는 신앙에 머무를 때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은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어 내 뜻대로 움직일 때, 구원을 받았어도 두려움과 근심,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 왕과 원수가 되었듯,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이 오면 옛 자아와는 원수가 됩니다. 옛 사람은 사탄의 체현이기에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 그 죽음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지혜와 거룩함, 구속함으로 나타나게 되시며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였으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도 그것을 이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애쓴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존귀하게 지음 받은 우리가 놀리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탄이 체현된 '내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으며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처럼 가지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진액이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친히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가정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하나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속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위치를 잊지 말고,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송성수 (제인) 자매 - 남은 항암치료 회복과 병원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살롬!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태평양의 시원한 바람이 언덕 중간에 있는 저희 교회를 덮듯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요즘입니다.

함께 8개월간 예배드렸던 로사가정의 아이들(다니엘, 알렉산데이, 마릴루즈)이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 밭에 떨어져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개개인이 상담 시간에 죄인에서 의인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눔에 있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년도 10월이 되면 버스로 꼬박 4일을 가야지 나오는 자신들의 고향(게레로)으로 떠나는 이 가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교회 형제, 자매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감사한 소식은 7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마을에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이 예배는 마을 앞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매주 30여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아들 주안이가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어떤 때 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소식 마칩니다. Gracias!

임주영 목사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9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11일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교우들을 위한 나성 시니어스쿨 가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에 해당하는 각 남녀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시니어스쿨 설명 안내지와 신청서를 픽업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14일 다음 주일부터 구역모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과 KM 연합으로 가을 특별 합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우들은 최연정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 대접합니다.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 삼나소식



<http://samsungch.or.kr/samnanews/>